



박소현의 섹.시.토크

남편이 카풀을 시작했다는 말을 한 건 몇 주 전의 일이었다. 남편은 지나가는 말로 "사무실 후배가 동네로 이사 왔다. 그래서 출근할 때만 태워 주기로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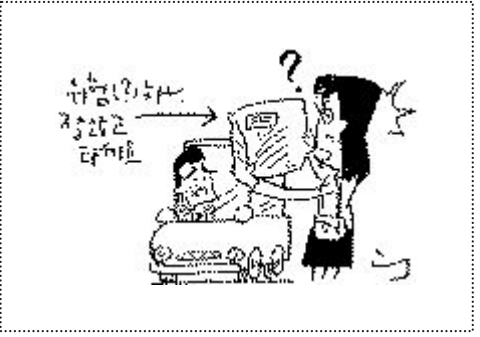
그런데 며칠 전 출근 준비에 바쁜 남편 휴대전화로 문자가 도착했고, 별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J는 '팀장님, 5분만 늦을게요. 죄송해요.'

"말했잖아. 후배랑 카풀한다고.", "여자 후배라고는 안 했잖아."

"여자가 남자와 그게 뭐가 중요해?" 정말 모르겠다는 듯 쳐다보는 남편. 그런 남편을 향해 '여자와 카풀 하는 건 싫어'라고 외쳐려니 일이 떨어지지 않는다.

남편은 '그렇게 자신이 없어?' 라고 말할 게 분명하니깐, 남편이 출근한 뒤 J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카풀은 불륜의 시작이라는 말을 무수히 들어온 탓도 있지만, J역시 같은 회사 선배였던 남편과 카풀을 하다 연애를 시작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무서운 선배였고 J는 실수 연발인 사고뭉치 후배였다. 그런데 그 무서운 선배가 같은 방향이라며 카풀을 제안했고, 그녀는 경계를 하면서도 차를 얻어타기 시작했다. 도로사정은 엉망이었지만 차 안에 언제나 좋은 음악이 흘러,



모닝커피도 준비돼 있었다. 호랑이 선배의 의외의 모습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가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앞차가 급하게 서는 바람에, 그들이 타고 있던 차도 급정거를 하게 됐다. 문제는 지금의 남편이 그녀를 보호하듯 손을 그랜 그녀의 가

슴을 더듬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카풀을 그만두지 않았고, 그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깊은 관계로 발전해 결혼

"미희가 누구야?" "말했잖아. 후배랑 카풀한다고" 카풀하다 바람나기 부지기수 차라리 기름값 폭등했으면...

에 이른 것이다. 과거를 떠올리자 J의 시름은 깊어졌다. 긴박한 상황에서 여자를 보호하는 것은 남자의 본능이 아닌가. 유부남이라고 그런 보호 본능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그때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었다.

남편이 좁은 차 안에서 다른 여자와 있는 것도

공포의 카풀

싫고, 젊은 여자라는 게 더 싫었다. 카풀하다 바람이 나는 경우는 머리 잡고 밖에 나갔다 감기 걸리는 경우만큼이나 흔한 일이기도 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J는 예쁜 쿠션 하나를 남편에게 건넸다.

"여운 좌석에 놔둬. 후배가 안고 타게.", "쿠션을 왜 안고 타?" "우리 차 보조석에 에어백 없잖아. 혹시 모르니까 그거 안고 타라고 해."

물론 남편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것이 본의 아니게 가슴에 손이 닿는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용 쿠션이라는 사실을. 쿠션에는 메모도 한 장 붙여놓았다.

'에어백 없으니까 이 쿠션 꼭 안고 타세요. 우리 남편 운전 실력을 믿을 수 없어서요.'

예쁜 글의 속내는 사실 '내가 지켜볼 거예요.' 다. 그런데 그걸 보내놓고도 마음은 편치 않다. 쿠션 한 개가 무슨 힘이 있었는가. 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 그 자체를 어찌할 것인가. 차라리 기름값이 폭등해 남편이 자동차 출근을 포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았다.

불륜의 천국 한국에서 아내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다. <연애칼럼니스트>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대덕여고 사고 운전자 자살 ... 네티즌 애도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미국 대선은 인터넷 세상에서도 화제가 됐다.

지난 4일 미국에서는 제44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실시됐다. 첫 흑인 대통령과 72세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진행된 접전에서 민주당의 오바마후보가 공화당의 맥케인 후보를 누르고 미국 대통령에 선출됐다. 미국은 물론 많은 네티즌이 사상 첫 흑인 미국 대통령의 탄생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오바마를 인기 검색어에 올려놓았다.

전설적인 축구스타 마라도나도 네티즌의 주목을 끌었다. '신의 손'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감독에 공식 선임되면서 화제가 됐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5일 "오늘은 아르헨티나 축구에 있어 매우 특별한 날"이라며 "마라도나를 신임 감독에, 1986년 멕시코월드컵 우승 당시 감독이었던 카를로스 빌라르도를 총감독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감독에 대한 욕심을 보여왔던 마라도나는 자신의 꿈이 실현됐다며 감격스런 소감을 밝혔다. 마라도나는 오는 19일 스토클랜드와의 친선경기에서 첫 지휘봉을 잡게 된다.

지난달 29일 여고생 3명이 하룻길 승합차 추락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으며 안타까움을 샀던 부산 대덕여고가 다시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지난 3일 사고 승합차를 운전했던 박 모(60)씨가 사고에 대한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네티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박 씨는 자신이 운전했던 승합차가 추락하면서 여고생 3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는 사실을 괴로워하다 지난 3일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네티즌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너무 안타깝다", "평소 학생들을 챙겨주시던 좋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슬프다.", "위험한 하룻길을 그대로 방치하고 학생들 안전에 소홀히 한 학교 측에서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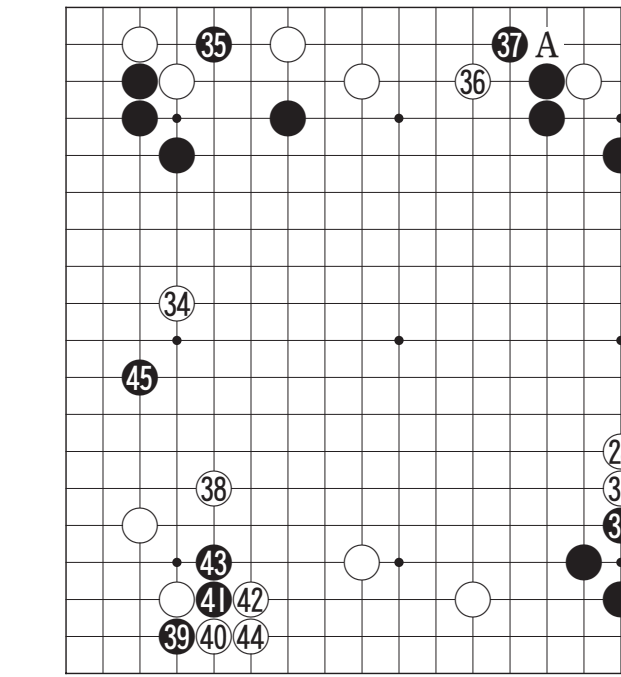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달 승합차 추락사고로 여고생 3명이 숨지고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 대덕여고 앞 진입로 사고지점에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꽃다발이 놓여있다.

최초의 승부처 어린이부 결승 3보(26~45)

白 나태현 (경기도) 黑 현승민 (제주도)



백 26으로 끊는데서부터 전투가 개시되었다. 이렇게 되면 백 30까지는 외길이다. 이때 현승민군이 처음으로 장고하더니 흑 31로 꼬부렸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끊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흑 9까지 된 다음에 '가'와 '나'의 곳이 선수라 우상쪽의 흑집이 깨질 것을 우려해 실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전은 흑 33의 한 수가 더 필요하네다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리빙 센스

스모키 화장 - 블랙

- 쌍꺼풀 있는 눈 1. 연한 브라운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바른 뒤 초콜릿 색 도를 아이홀 부분에 덧발라 음영감을 준다. 2. 블랙 펜슬 아이라이너로 쌍꺼풀 라인을 따라 다소 두껍게 그려준다. 아래쪽에도 가늘게 그린다. 3. 라인이 번지지 않도록 아이라인을 따라 블랙 색도를 살짝 덧바른다. 마스카라를 여러 번 덧발라 깊이 있는 눈매로 표현한다.

- 쌍꺼풀 없는 눈 1. 연한 브라운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바른 다음 아이홀 부분에 짙은 브라운 컬러를 살짝 덧발라 음영감을 준다. 2. 펄 타입 블랙 아이라이너로 눈을 찔 때 라인이 약간 보이는 위치까지 두께감 있게 라인을 그려준다. 눈꼬리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주의. 3. 아래에도 라인을 그린 다음 자연스럽게 라인 위와 아래쪽에 블랙 아이세도를 발라준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1월 7일(음 10월 10일辛亥)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for the day. Signs include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Rat, Ox, Tiger.

Advertisement for Derma 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우눈은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굿모닝 잉글리쉬 <1184> 오하오우 니혼고 <1184> 니하오 쑹구위 <261> 한자 이야기 <901>

English lesson content: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난 그저 그 점을 확실하고 싶어.' with multiple choice options A, B, and C.

Japanese lesson content: '彼女(かのじょ)にぴったりだと思(おも)うわ. 그녀에게 딱 일 것 같아.' with multiple choice options A, B, and C.

Chinese lesson content: '市场卖水果吗? 시장에서 과일을 판니까?' with multiple choice options A, B, and C.

Chinese lesson content: '伯俞泣杖(백유읍장) 만 백, 그러할 유, 울음, 몽둥이 장' with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idiom.